

# 네 인생의 이야기

테드 창

## 장면 1

네 아버지가 지금 내게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해.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나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억에 새겨두려고 하고 있지. 그이와 나는 밖에서 디너쇼를 보고 방금 돌아온 참이란다. 자정을 넘은 시각, 우리는 보름달을 보기 위해 파티오에 나와 있어. 춤을 추고 싶다고 네 아버지에게 말하자 그이는 쾌히 응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춤을 추고 있어. 달빛 아래에서, 십대들처럼, 삼십대의 남녀가 앞뒤로 천천히 몸을 흔들면서. 밤의 한기는 전혀 느끼지 않아. 이윽고 네 아빠는 이렇게 말해. “아이를 가지고 싶어?”

네 아버지와 나는 결혼한 지 이 년쯤 된 부부이고, 지금은 엘리스 애비뉴에 살고 있어. 이사를 갈 무렵 너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이 집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네게 사진을 보여주고 이 집 얘기를 해줄거야. 오늘밤의 이야기. 너를 잉태했던 이 밤의 이야기를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단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내가 너의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었을 때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우리는 결국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겠지.

그보다 이른 시기에 네게 얘기해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네 인생의 거의 모든 기간에 걸쳐서, 너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이렇게 로맨틱한—나라면 감상적이라는 표현을 쓰겠지—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하지는 않을 테니까. 나는 네가 열두 살 때 내놓게 될 너의 탄생 시나리오를 기억해.

“엄마가 나를 낳은 이유는 단 하나, 월급 안 줘도 되는 하녀를 들이기 위해서야.” 벽장에서 진공 청소기를 끌어내면서 너는 쓰디쓴 어조로 이렇게 말하겠지.

“맞아.” 나는 이렇게 대답할거야. “십삼 년 전 난 지금 이맘때쯤 카펫을 청소할 필요가 생길 것을 깨달았고, 제일 값싸고 손쉬운 방법이 애를 낳는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 자 이제 청소를 시작하렴.”

“진짜 엄마만 아니었다면 이건 불법이었을 텐데.” 너는 화가 잔뜩 치민 표정으로 전선을 빼내 벽의 콘센트에 꽂으면서 이렇게 말할 거야.

그건 우리가 벨몬트 스트리트의 집에 살고 있을 때의 일이겠지. 살아가면서 나는 두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너를 가졌던 집과 네가 자란 집들에 말이야. 네 아빠와 나는 네가 태어나고 이 년 후에 첫 번째 집을 팔아. 나는 네가 떠나간 직후에 두 번째 집을 팔지. 그 무렵이면 넬슨과 나는 그 농가로 이사하고, 네 아빠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겠지.

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단다. 자주 그 생각을 해보곤 해. 불과 몇 년 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도 자주 생각에 잠기곤 하지. 지구 궤도상에 우주선들이 느닷없이 출현하고, 목초지에 인공물들이 나타났던 그때 말이야. 정부는 그 일에 관해 함구하다시피 했어. 싸구려 신문에선 온갖 가능성을 떠들어댔지만.

그러던 중에 전화가 올렸고, 난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거야.

## 장면 3

그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은 아마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대한 전화 통화였는지도 몰라. 첫 번째는 물론 산악 구조대에게서 걸려온 전화였겠지. 그 시점에서 네 아빠와 나는 일 년에 많아 봐야 한 번쯤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가 되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전화를 받고 내가 처음 한 일은 네 아빠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겠지.

그이와 나는 차를 타고 침묵으로 가득 찬 긴 노정을 함께하게 될 거야. 신원 확인을 위해 가는

길이야. 온통 타일과 스테인리스뿐인 시체안치소, 냉동 장치가 웅웅거리는 소리와 방부제 냄새를 기억해. 직원이 시트를 걸어 네 얼굴을 보여줄거야.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겠지만 네 얼굴이라는 걸 나는 알겠지.

“예, 맞습니다.” 나는 말하겠지. “제 딸입니다.”

그때 네 나이는 스물다섯 살이야.

### 장면 23

게리와 나는 조그만 중국 음식점에 와 있었다. 캠프에 있기가 싫어질 때 함께 들르곤 하는 곳이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전채를 먹고 있었다. 돼지고기와 참기름 향이 잘 조화된 군만두였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다.

나는 초간장에 군만두를 찍었다. “‘헵타포드 B’ 배우는 건 얼마나 진전됐어?”

게리는 비스듬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보려고 했지만 그가 자꾸 딴청을 피우며 내 시선을 피했다.

“포기했지? 이제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거 아냐?”

게리는 그럴듯하게 풀죽은 표정을 지으며 고백했다. “난 언어에는 아예 소질이 없나봐. ‘헵타포드 B’를 배우는 건 다른 언어를 습득한다기보다는 수학을 배우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어. 나한테는 너무 이질적이야.”

“그걸 알면 헵타포드들과 물리학 토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아마 그럴겠지. 하지만 일단 돌파구를 찾았으니까 몇 가지 표현만 알면 토론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보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 솔직히 고백하자면 실은 나도 수학 배우려는 걸 포기했거든.”

“그럼 피장파장인가?”

“피장파장이야.” 나는 차를 훌쩍였다. “그런데 페르마의 원리에 관해서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가 이상한데, 그게 무엇인지 꼬집어 말할 수가 없어. 물리학 법칙처럼 들리지 않는다고 할까.”

게리의 눈에 재미있어하는 빛이 떠올랐다. “당신이 뭘 말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 그는 젓가락으로 군만두를 반으로 갈랐다. “당신은 빛의 굴절을 인과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데만 익숙해 있어. 수면에 도달하는 것은 원인이고, 그 방향이 바뀌는 것은 결과라는 식이지. 페르마의 원리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 건 빛의 행동을 목표 지향적인 표현을 써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야. 마치 광선에 대한 계명(誡命)의 느낌이랄까. ‘네 목표로 갈 때는 도달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할지’하는 식으로 말이야.”

나는 이 말에 관해 곰곰이 생각했다. “계속해봐.”

“그건 물리 철학의 오래된 의문이야. 페르마가 1600년대에 그걸 처음 법칙화한 이래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지. 플랑크는 관련 저서까지 여러 권 썼어. 문제의 쟁점은, 물리 법칙의 통상적인 공식은 인과적인데 페르마의 원리 같은 변분원리는 합목적적이고, 거의 목적론적이기까지 하다는 점이야.”

“흠, 흥미로운 제기 방식인데? 조금 생각해볼 테니 잠깐 기다려봐.”

나는 사인펜을 꺼내서 종이 냅킨 위에 게리가 내 칠판에 그렸던 것과 똑같은 도식을 그렸다.

“좋아.” 나는 소리 내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말했다. “그럼 이 광선의 목표는 가장 빠른 경로를 택하는 것이라고 해. 빛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의인화를 통해 확대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면, 빛은 일단 선택 가능한 경로들을 검토하고 각

각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야 해.” 게리는 마지막 군만두를 접시에서 집어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광선은 자신의 정확한 목적지를 알아야 해. 목적지가 다르다면 가장 빠른 경로도 바뀔 테니까.”

게리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목적지가 없다면 ‘가장 빠른 경로’라는 개념은 무의미해 지지. 그리고 해당 경로를 가로지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경로 중간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이를테면 수면이 어디 있는지 등의 정보도 필요해.”

나는 냅킨에 그려진 그림을 계속 응시했다. “그리고 광선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모두 알고 있어야 해. 움직이기 전에. 맞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빛은 이전의 지점을 향해 출발한 다음 나중에 진로를 수정할 수는 없어. 그런 행위에서 야기된 경로는 가장 빠른 경로가 아니니까. 따라서 빛은 처음부터 모든 계산을 끝마쳐야 해.”

나는 마음속으로 이 사실을 곱씹었다. 광선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선택하기 전,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게리를 올려다 보았다. “내가 고민하던 것도 바로 그거였어.”

#### 장면 24

내가 열네 살인 때를 기억해. 학교에 제출할 리포트를 쓰던 너는 낙서투성이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네 침실에서 나오지.

“엄마, 양쪽 진영 모두가 이길 수 있을 때 쓰는 말이 뭐야?”

컴퓨터로 논문을 쓰던 나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하지. “윈-윈 말이야?”

“그런 걸 표현하는 수학 용어 비슷한 전문 용어가 있잖아. 아빠가 여기 와서 주식시장 얘기하던 거 생각 나? 그때 아빠가 그 말을 썼어.”

“글쎄, 들은 기억이 있긴 한데 정확히 그때 뭐라고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네.”

“알아내야 하는데, 사회 과목 리포트에 그 말을 쓰고 싶거든.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정보 검색도 못하겠고.”

“미안. 나도 생각이 안 나.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그러니?”

네 표정을 보아하니 그 정도로까지 노력할 생각은 없어 보여. 이 시점에서 너와 네 아버지 사이는 그리 좋지 않을 테니까. “엄마가 대신 물어봐주면 안 될까? 내가 물어봤다고는 하지 말고.”

“네가 직접 걸어.”

너는 화를 내. “세상에, 엄마 아빠 헤어진 다음부터는 숙제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안 돼.”

내가 얼마나 많은 상황을 우리 이혼과 연관시킬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야. “지금까지 도와줬잖아.”

“백만 년쯤 전에?”

이런 얘기는 그냥 하도록 내버려둬야겠지. “나는 도와주고는 싶지만 생각이 안 나는 걸 어쩌겠나.”

너는 씩씩거리며 네 침실로 다시 들어가 버리겠지.

#### 장면 31

미래를 아는 일이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 단지 추측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실제로 아는 것이 가능할까?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은 시간 대칭적이며, 과거와 미래 사이에 물리적인 차이는 없다는 이야기를 게리에게 들은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맞다”라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대다수는 자유의지의 존재를 근거로 내세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보르헤스풍의 우화적 이야기를 통해 반론을 전개해보겠다. 과거와 미래에 걸친 모든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세월의 책』 앞에 한 여자가 서 있다고 치자. 원본을 작게 복사한 것이지만, 이 책은 여전히 거대하다. 한 손에 확대경을 든 이 여자는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찾기 위해 티슈처럼 알따란 책장을 넘긴다. 자신이 책장을 넘기고 있는 것을 기록한 대목을 찾아낸 그녀는 다음 대목으로 넘어간다. 그곳에는 그날 그녀가 나중에 하게 될 일들이 자세히 적혀 있다. 그녀가 책에서 읽은 정보를 바탕으로 경주마인 ‘될 대로 되라’에 100달러를 걸고 스무 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정말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만, 청개구리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탓에 그녀는 경마에 돈을 걸지 않기로 결심한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세월의 책』은 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책의 시나리오에 어떤 사람이 가능한 미래가 아닌 실제의 미래에 관한 지식을 제공받는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이것이 고대 그리스 비극이었다면 운명을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에 의해 결국 그 운명에 따라 행동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흘러갈 것이다. 어차피 그리스 신화의 예언은 모호하기로 악명이 높다. 이에 비해 『세월의 책』은 극히 명확하고, 책에 명시된 식으로 그녀가 경주마에 돈을 걸도록 강요할 방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모순이 생겨난다. 『세월의 책』은 절대 옳아야 한다. 그러나 이 책이 뭐라든지 그녀는 그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양립시킬 수 있을까?

양립할 수 없다, 가 통상적인 대답이다. 『세월의 책』은 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존재 자체가 위에서 언급한 모순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조금 관대한 입장을 취해, 독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한 『세월의 책』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은 특별 컬렉션의 일부이고, 이것을 열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식으로 말이다.

자유의지의 존재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의지란 의식의 본질적인 일부인 것이다.

아니, 정말로 그런 것일까? 미래를 아는 경험이 사람을 바꿔 놓는다면? 이런 경험이 일종의 절박감을, 자기 자신이 하게 될 행동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불러일으킨다면?

### 장면 33

The rabbit is ready to eat. 이 문장에 관해 생각해보자. 여기서 rabbit을 eat의 목적어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저녁식사가 곧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문장이 된다. 그러나 rabbit을 eat의 주어로 본다면 이것은 이를테면, 어린 소녀가 퓨리나사의 애완용 토끼사로 봉지를 열 작정임을 자기 어머니에게 알리는 경우에 맞는 암시에 해당한다. 이 둘은 완전히 상이한 언술이다. 사실 한 가정 안에서 이 두 언술이 공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 타당한 해석이다. 문맥이 이 문장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할 뿐이다.

빛이 한 각도로 수면에 도달하고, 다른 각도로 수중을 나아가는 현상을 생각해보자. 굴절률의 차이 때문에 빛이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한다면, 이것은 인류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빛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한다면, 당신은 헵타포드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해석이다.

물질 우주는 완벽하게 양의적인 문법을 가진 하나의 언어이다. 모든 물리적 사건은 완전히 상이한 두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는 하나의 언술에 해당된다. 한 가지 방식은 인과적이고, 다른 방식은

목적론적이다. 두 가지 모두 타당하고, 한쪽에서 아무리 많은 문맥을 동원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부정적 판정을 받는 일은 없다.

인류와 헵타포드의 조상들이 맨 처음 자의식의 불꽃을 획득했을 때 양측은 모두 동일한 물질세계를 지각했다. 하지만 지각한 것에 대한 해석은 각자 달랐다. 세계관의 궁극적인 상이함은 이런 차이가 낳은 결과였다. 인류가 순차적인 의식 양태를 발달시킨 데 비해, 헵타포드는 동시적인 의식 양태를 발달시켰다. 우리는 사건을 순서대로 경험하고, 원인과 결과로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지각한다. 헵타포드는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그 근원에 깔린 하나의 목적을 지각한다. 최소화, 최대화라는 목적을.

#### 장면 40

“금발머리는 아빠 곰의 죽을 먹으려고 했지만 거기에는 금발머리가 싫어하는 양배추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너는 웃음을 터뜨릴 거야. “아냐, 그 애긴 틀렸어!” 너는 나와 함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고, 우리 무릎 위에는 두께는 얇으면서 가격만 비싼 하드커버 그림책이 놓여 있지.

나는 계속 읽어. “금발머리는 엄마 곰의 죽을 먹어보았지만, 그 죽에도 역시 싫어하는 시금치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책장을 손으로 누르고 나를 제지하지. “원래대로 읽어줘. 엄마!”

“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고 있는데?” 나는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지.

“아냐, 엄마가 한 얘기는 진짜 얘기하고 달라.”

“별서 무슨 애긴지 알고 있는데 왜 나더러 읽어달라는 거야?”

“애기를 듣고 싶으니까!”

#### 장면 43

태어난 지 하루가 된 너를 바라보고 있을 때의 느낌을 기억해. 네 아버지는 요기를 위해 잠시 병원 식당으로 갔고, 나는 신생아용 침대에 누운 너를 보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있지.

출산 직후라서 그런지 나는 아직 꼭꼭 쥐어짠 타월이 된 듯한 기분이야. 임신중에는 그렇게 거대하게 느껴지더니 막상 보니 너는 너무나 작겠지. 침대에 누워 있는 너보다 훨씬 더 크고 건장한 아기라도 충분히 뱃속에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너의 손과 발은 길고 가늘고 아직 통통해지지 않았어. 얼굴은 아직 새빨강게 오그라든 상태이고 통통 부은 두 눈꺼풀은 꼭 닫혀 있어. 천사처럼 귀여워지기 전에 거쳐가는, 도깨비를 닮은 단계라고나 할까.

나는 손가락으로 너의 배를 훑으며 깜짝 놀랄 정도로 부드러운 살갗의 감촉에 감탄할거야. 살이 이렇게 부드러우면 설령 비단옷을 입힌다 해도 거친 삼베 천에 스친 것처럼 상처가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야. 그러면 너는 꿈틀거리고, 몸을 비틀면서 양쪽 다리를 하나씩 내밀어. 나는 그것이 네가 내 뱃속에 있을 때 여러 번 했던 몸짓이라는 것을 깨닫겠지. 아, 바로 저런 식이었군.

나는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유대 관계의 증거, 네가 내 뱃속에 있던 자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양감을 느껴. 설령 너의 모습을 직접 본 일이 없다고 해도, 나는 수많은 갓난아이들 사이에서도 단번에 너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저쪽은 아녜요. 아, 재도 아닙니다. 잠깐, 저기 저애예요.

예, 그 아이가 맞아요. 제 딸입니다.

#### 장면 44

최후의 '선물 교환'이 이루어진 날은 우리가 헵타포드를 본 마지막 날이었다. 전 세계에 분포한 그들의 체경은 일제히 투명해졌고, 그들의 우주선은 지구 궤도를 떠나갔다. 나중에 분석해보니, 체경은 석영 유리판에 불과했고, 화학적으로도 완전히 비활성 상태였다. 마지막 교환 세션에서 그들이 보낸 정보는 새로운 종류의 초전도체를 묘사하고 있었지만, 이후 일본에서 갓 완료된 연구 결과의 복제임이 밝혀졌다. 인류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했던 것이다.

우리는 헵타포드가 왜 떠났는지 결국 알아내지 못했다. 무슨 이유에서 지구로 왔는지, 왜 그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 지에 관해서도 알아내지 못했다. 나 자신의 새로운 인식은 그런 종류의 지식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헵타포드의 행동을 순차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알아내지 못했다.

나는 헵타포드들의 세계관을 좀더 많이 경험하고,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느끼고 싶었다. 그랬더라면 아마 나는 그들처럼 사건들의 필연성의 바다에 완전히 몸을 담글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남은 일생동안 얇은 물가에서만 철벽거리는 대신에 말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체경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언어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헵타포드의 언어들을 계속 학습하겠지만, 우리 중 누구도 헵타포드들이 이곳에 있었을 때보다 더 앞의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헵타포드들과의 공동 작업은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어. 나는 너의 아버지를 만났고, '헵타포드 B'를 배웠어. 이 두 가지 사건은 내가 지금 너의 존재를 아는 것을 가능하게 해. 달빛에 물든 이 파티오에서 말이야. 훗날, 세월이 흐른 뒤에는 네 아버지도 떠나가고, 너도 떠나가게 될 거야. 이 순간으로부터 내게 남겨질 것은 오직 헵타포드의 언어밖에는 없어. 그래서 나는 주의를 기울이고, 그 어떤 세부도 놓치지 않을 작정이야.

나는 처음부터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상응하는 경로를 골랐어. 하지만 나는 지금 환희의 극치를 향해 가고 있을까, 아니면 고통의 극치를 향해 가고 있을까? 내가 달성하게 될 것은 최소화일까, 아니면 최대화일까?

이런 의문들이 내 머리에 떠오를 때, 네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물어.

“아이를 가지고 싶어?” 그러면 나는 미소 짓고 “응”이라고 대답하지. 나는 내 허리를 두른 그의 팔을 떼어내고, 우리는 손을 마주잡고 안으로 들어가. 사랑을 나누고, 너를 가지기 위해.